

# 취재현장의 메커니즘과 취재윤리 (I)

윤길용

MBC 시사교양국 부장

- 고려대 영문학과 및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저널리즘 졸업
- MBC 「PD 수첩」 창설 멤버 및 담당 PD 역임
- PD 연합회 '올해의 PD상', 엠네스티 인권상 등 수상
- 「소쩍새 마을의 진실」, 「대순진리회를 아십니까」, 「이단시비, 목자님, 우리 목자님」 외 다수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

## 진실보도와 취재윤리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타협을 한다면 프로그램도 역시 타협처럼 되고 만다”.

미국 CBS의 <60분>(60Minutes)의 책임 프로듀서인 돈 휴이트의 말이다. 긴 시간에 걸쳐서 타협을 시도하게 되면, ‘이것도 들어가야 하고, 저것도 들어가야 한다’는 식으로 여러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타협이야말로 바로 휴이트의 첫 번째 금기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시사교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이 말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

최근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 사건에서 시작된 언론의 취재윤리 문제로 온 사회가 뜨겁다. 이중 특히 취재현장에서 취재원에 대한 강압적 취재와 몰래카메라 사용<sup>1)</sup>이 주요 논란거리다.

흔히 강력사건에서 ‘현장은 사건 해결의 보고’라고 말한다. 그만큼 미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들이 현장에 널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고발프로그램을 만들 경우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서 합리적이고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취재윤리만 지키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고발프로에 등장하는 주인공 대부분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하며 권력과 자본력을 지닌 기득권층이자 파워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나 잘못 했소’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힘든 게 현실이다.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거는 힘든 작업일지도 모른다.

반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던 국민도 인격권 보호에 관심이 높아져 이제는 ‘수사권도 없는 언론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설치는 걸까? 단지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면서 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

1) 이를 ‘은폐적 취재방법’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 언론의 가장 기본임무인 사회비리 고발시 취재윤리에 반하는 상황 생길 수밖에 없어

가?’라는 의문을 품은 채 언론을 바라보고 있다. 그만큼 언론의 알권리라는 것도 언론인 자신의 위법사실을 변명하려는 궁색한 모습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에게 고발프로, 탐사보도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수사보도’(Investigative Journalism)라는 표현이 옳다. 취재기법을 직업적 탐정의 수사기법에서 원용하나 불법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진실추구라는 명분이 좋더라도 가명취재나 잠행취재는 예외적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sup>2)</sup>

강압취재는 취재 시 상대방에게 위압적인 분위기로 공포감을 줘 강요된 답변을 이끌어내는 취재방법으로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고문하여 자백을 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정당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법원도 고문에 의한 자백을 인정하지 않은지 오래다.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피의자의 위치에 설지도 모른다. 사회적으로 아주 비난받을 내용, 이를테면 상습적인 아동 성학대범이나 파렴치범을 다룰 때 취재진 스스로 감정을 조절 못해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개연성은 있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강압취재로 얻은 취재물이 방송된다면 이 또한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당하는 구조적인 모순을 타파하여 좀 더 나은 세상’을 지향하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일 뿐이다. 또한 취재진이 원래 추구했던 진실마저 밝히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몰래카메라의 사용에 관한 논란은 좀 더 복잡한 모습을 띠고 있다. 취재윤리와 진실추구라는 이율배반적 요소, 언론의 가장 기본임무인 사회비리

고발의 경우 취재윤리에 반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 양심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행위 자체의 도덕성에 무게중심을 뒀다. 절차가 비윤리적이라면 결과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윤리의 절대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벤담이나 J. S. 밀 등이 주장한 공리주의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윤리의 절대성을 강조할 경우 언론의 취재윤리에 대해 절대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피치 못할 상황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sup>3)</sup>

그간의 취재경험으로 미뤄볼 때, 이 두 가지 의견 어느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복잡한 현대생활에서 인간의 어느 한 모습을 보고 전체로 규정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인간은 천사와 악마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에 동조하는 편이다.

### ‘보다 중요한 도덕적 명분’이 전제조건

몰래카메라 취재에 의한 논란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1992년 11월, 미국 ABC의 인기프로그램인 「프라임 타임 라이브」(Prime Time Live)에서 보도한 ‘푸드 라이언’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대형 체인점인 ‘푸드 라이언’이 유효기간 표시를 고쳐 유효기간이 지난 고기를 판다는 정보를 입수해 자사의 기자와 PD를 ‘위장 취업’시켜 이 회사에 들여보낸다. 이들

2) 한겨레 2005. 12. 6.자. 김영호, ‘피디수첩만의 문제가 아니다’.

3) 연합뉴스 2005. 12. 6.자. 이영섭, ‘저널리즘의 위기’ 고발기능 없앨 썬인가’.

은 유효기간 표시를 바꿔치기하는 과정을 몰래카메라에 그대로 담았고 「프라임 타임 라이브」는 특종보도를 하게 되었다.

전 미국이 발각 뒤집혔음은 물론이다. 미 전역의 '푸드 라이언' 체인점에는 시민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였으며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서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푸드 라이언'은 오히려 ABC를 사유재산침해로 고소했고 주법원은 5백 50만 달러라는 거액을 ABC가 배상하라며 '푸드 라이언'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몇 년에 걸친 엇치락뒤치락 재판 끝에 연방대법원이 ABC의 손을 마지막에 들어 줌으로써 재판은 종지부를 찍었다.

몰래카메라의 취재기준을 정하는 일은 지난한 작업이기는 하다. 그러나 ABC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답은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도덕적 명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도덕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언론에서는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sup>4)</sup>

## 실제 취재 사례들

### 〈사례 1〉 소쩍새 마을의 진실

1995년 5월, 치악산 자락의 강원도 원주 관부면 금대리. 사방 온 천지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치악산의 위용이 취재진을 압도하고 있었다. 좁은 산길을 따라 30여 분 차로 달리자 인적이 끊어진 채 초여름이 무색할 만큼 시원한 바람이 창문을 통해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어둡고 나타난 소쩍새 마을. 200여 명의 정신지체아, 미혼모, 치매노인 등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한 스님의 보살핌아래 함께 살아가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어는 봄, 울며 보채는 아이를 달래려 밤에 애를 업고 밖으로 나왔지요. 마침 뒷산에서 우는 소쩍새의 소리와 엄마를 그

리는 아이의 울음이 묘한 대조를 일으켰어요. '저 말 못하는 새도 엄마를 그리워 하는데 너도 그렇구나' 하구요. 그래서 이름을 소쩍새 마을이라고 지었지요”. 아빠스님으로 불리던 원장은 취재진을 참 만나던 날 이렇게 이름의 유래를 설명하며 감격으로 다가왔다.

차가 입구에 멈추자 낯선 사람을 만난 것이 신기한 듯 원생들이 차 주변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부자연스런 몸짓의 맑고 맑은 눈을 가진 아이들이 오몸으로 기쁨을 표시하고 있었다.

‘침착하자, 당황하지 말자’ 스스로 다짐하며 나는 8mm카메라를 힘주어 쥐었다. 며칠 전 소쩍새 마을의 자원봉사자라는 젊은이들이 제보해 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실천하는 자비의 화신’, ‘제2의 원효’라고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안에서 겪은 아빠스님은 두 얼굴을 지닌 파렴치한이라는 것이었다.

긴가민가하면서도 우선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언론에 나타난 아빠스님의 활약은 위대하였다. ‘살아있는 생불’이라며 거의 모든 신문이 대서특필하였고 울기조차 잠지도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의 찬사로 그를 칭송하였다. 방송은 또 어떠한가? 오히려 한술 더 뜯 정도였다. 공중파 방송 한군데는 아빠스님을 1시간짜리 대담프로에 초대하여 미화시켰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내가 하는 걸 청소년들이 보고 따라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면 내가 행동하는데 있어 더 조심하지 않을까?’ 라고 태연스럽게 말하였다.

또 다른 공중파 방송에서는 그해 ‘부처님오신 날 특집’으로 소쩍새 마을을 1년간 취재한 특집 다큐멘타리를 방송하였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이 엄청났다. 얼마나 감동적으로 만들었던지 심지어 당시 나의 부장은 ‘눈물을 흘리며 보았노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쨌든 이런저런 언론의 홍보 덕분에 소쩍새 마을은 원장스님의 말을 빌리자면 원주에서 어떤 기업보다 현금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신도들이 한 번씩 들르는 순례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특종은 제보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요즘과 달리 당시의 제보는 인터넷보다 전화나 편지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다보니 팀 내에서도 전화를 친절하게

4) 경향신문 2004. 8. 3.자. 김동률, 「「몰카」금지하는 취재제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경우 검증을 통해  
사건 윤곽 파악 후 본 취재에서 상대방의  
비리를 밝혀

받거나 철자법이 틀린 편지라도 소홀하게 다루지 말라는 얘기가 불문을처럼 내려왔다.

이 날 소쩍새 마을에 간 것은 제보자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사전조사차 내려간 것이다. 소쩍새 마을에 가기 전 1차로 원주시내에서 우리에게 제보했던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이를 카메라로 녹화해두었다.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떤 비리를 폭로할 경우 제보자가 100% 순수하게 혹은 정의감이 투철해 실행에 옮겼다고 한다면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깊게 들어 가보니 이 자원봉사자들도 원장의 비리를 알고 난 다음 이를 근거로 약간의 거래(?)를 제안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일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제보를 했던 것이고 결국 필자에게 온 것이다.

전날 알아본 자료와 제보자의 인터뷰를 확보한 상태에서 소쩍새 마을을 찾았다. 어쩐 일인지 원장스님은 그날 자리에 없었다. 그를 따르는 사람이 대신 맞았다. 필자는 “「인간시대」 주인공으로 원장스님을 촬영하고 싶다”며 미리 준비해간 명함을 전달했다. 당시 「인간시대」는 휴먼다큐 프로그램의 대명사로 우리 이웃의 살아가는 모습을 진솔하게 다뤄 인기가 높아 방송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명함에 「인간시대」팀에서 일하고 있음이 적혀있었고 나중에 확인을 하더라도 탄로나지 않도록 사전에 동료들에게 부탁도 한 상태였다.

어떤 이는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취재를 맞추어간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검증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이 그려지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비리를 완전히

게 확신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본 취재에서 밝혀야 될 사안일 것이다.

며칠 후, 연락을 하고 다시 소쩍새 마을을 찾았을 때 원장스님은 우릴 반겼고 의심 없이 촬영에 임하였다. 원장이 있을 때는 휴먼다큐로 촬영하다가 그가 자리를 비우면 비리 증거를 확보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정신지체가 많아 많다보니 인터뷰도 쉽지 않았고 비밀을 유지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원장은 제작진을 의심하였고 할 수 없이 우리는 정체(?)를 밝히고 취재의 목적과 불가피함을 설명해야만 했다. 만일 이 기간 중에 제보의 신빙성이 허위거나 실제로 취재현장에서 비리를 확보할 수 없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했을 것이다.

취재 중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원장스님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다는 정신지체아를 태우고 새벽에 서울의 병원으로 달렸는데 하필이면 그 시각 소쩍새 마을엔 비상이 걸렸다. 원생들의 인원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순간 남아있던 취재진은 숙소에서 빠져나와 테이프를 들고 산으로 숨기도 했다. 정식 ENG카메라와 8mm카메라 수대가 촬영에 동원되었다.

취재진이 밝힌 내용은 아빠스님은 전과 7범이나 되는 되다가 정식 계를 받지 않은 무자격 승려였다. 그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으로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해 부인명의로 해놓았던 것이다. 술에 취하면 원생들에게 폭력과 성폭력을 수시로 일삼아 왔음도 사실로 드러났다.

취재 중 그는 원생들을 방송국에 풀어 놓겠다고 엄포를 놓다가 급기야 자신이 기(氣) 전문가라며 ‘너 하나 썸 죽일 수도 있다’며 위협하기도 하였다.

결국 수십 년 간 그토록 언론을 좋아하던 원장스

님과 이를 미화하며 이용했던 언론에 의해 그의 실체가 벗겨진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방송 후 거액의 돈을 중국으로 빼돌려 달아났고 이 사실이 사법당국에 의해 추적당해 결국 국내로 압송, 사법처리 되면서 또 한 번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 〈사례2〉 OO 도사를 만나다

“OO도사는 지관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을 취재해주세요”. 1997년 3월 한 중년부인이 제보를 했다.

OO도사가 누구인가? 우리나라 풍수지리의 1인자로 김일성의 죽음을 예언했다고 일약 유명세를 탔으며 전직 대통령들과 장관, 국회의원들의 조상과 관련하여 묘지를 봐주는 지관이 아니던가? 전직 모 대통령은 자신의 조상의 묘 터를 부탁해 이장했고 또 다른 전직 대통령도 선거 전 부모의 묘소를 옮겨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이뿐이 아니었다. 도사는 중국 등소평, 대만의 장개석 총통 심지어 일본 왕의 어머니 묘도 자신이 직접 만들어 줬다고 했으며 월간지들은 이를 대서특필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무렵 OO도사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

제보내용인즉, 이 부인의 남편이 고위공무원인데 승진에서 미끄러지자 우연히 OO도사가 쓴 책을 읽은 부인은 남편의 실패가 혹시 자신이 충청도에 갖고 있던 수십만 평의 산 때문이 아닌가 싶어 OO도사를 찾았는데 도사는 ‘그 산에 귀신이 썩워 그러니 산을 처분해야 남편이 성공한다’며 매매를 권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매가 되지 않자 결국, 부인을 부당하게 피어 산을 헐값에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도사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당시 필자 본인은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져 노출의

위험으로 직접 갈 수 없었다. 결국 「PD 수첩」에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후배가 도사를 만나기로 하였다. 우리는 “「한식날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장묘문화에 대해 취재한다”고 연막을 친 후 도사에게 접근, 취재를 할 수가 있었다.

인터뷰 경험이 많은 도사도 만만하게 당하고 있지는 않았다. 고발프로와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과는 취재방법이 다를 수밖에. 의심을 품던 도사는 ‘정체가 뭐냐’며 취재진을 다그치기 시작했고 PD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자 이제 촬영감독에게 화살을 돌렸다. 제대로 말할 수 없었던 촬영감독은 걸으론 도사에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촬영은 해야 하는 강심장을 필요로 하게 되어 그 충격으로 다시는 이 프로를 맡으려고 하지 않았다.

취재를 해보니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 국회의원 등 수많은 고관대작들이 OO도사에게 가족의 묘지를 부탁해왔음이 밝혀졌다. 도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사업에 활용, 과장 왜곡하였으며 언론은 확인도 하지 않고 그의 허명을 대서특필 선전하기에 바빴던 것이다. OO도사가 외국인수들의 묘를 봐줬다는 얘기도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지금도 해당국 대사관에 팩스를 넣어 진위여부를 확인했을 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던 대사관 직원들을 보며 느꼈던 부끄러움을 잊을 수가 없다.

### 〈사례 3〉 H 교주를 만나다.

1997년 10월, 경찰청 특수기동대에서 전화가 왔다.

“말하기 뒤틀린 사건인데요. 여성들을 훈미케 해서 성폭행하고 세상이 끝난다고 미혹해 돈을 뜯어낸 사이비 교주가 있어요. 이들에게 당한 여성이 20여 명이나 되는데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 중엔 모녀도 있었어요. 진술을 들어보니 진실인 것 같은데 공소기간이 애매해 우선 방송에서 날날이 밝혀 이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해 주십시오”. 제보한 박 형사는 베테

고발프로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할 수도 있기에 취재에 있어  
늘 신중을 기해

랑 여형사였다.

세기말을 앞둔 1990년대는 세상이 끝난다는 종말론과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를 주장하는 사이비 종교로 사회가 혼란스러웠다. 사이비 종교에 현혹돼 '곧 있으면 세상이 바뀌는데 지금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바친 채 가정을 버리는 가장과 주부들,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 직장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에 관한 얘기로 뉴스의 홍수를 이루었다. 심지어 이런 사이비 종교단체를 고발하던 종교연구가가 「PD 수첩」에 출연한 이후 백주에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서울 한 북판에서 △△ 종교라는 시설을 지어놓고 교주는 자신이 온 세상을 구하려고 내려온 정 도령이라며 아픈 사람에게 진찰도 하고 약도 조제를 했지만 실제로 그는 무면허였다. 또한 교주는 지방에 기도를 간다는 명목으로 여신도들을 데리고 가서 정조를 유린하였는데 피해여성의 나이가 20대부터 60대에 이르고 있다. 그뿐인가? 교주는 종말론을 부르짖어 신도들이 전 재산을 바치게 만들어 결국은 가정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렇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나? 바보가 아닌가? 그러나 피해자 7명을 직접 만나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피해자들은 병을 고쳐준다거나 집안의 액운을 막아준다는 교주의 말을 믿었다가 당했으며 그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까지 하였다.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여성은 결국 남편과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하면 교주를 만날 수 있을까?

종교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이곳은 항상 문이 잠겨있고 감시카메라로 일일이 안에서 신원을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었으므로 아무나 접근할 수 없었다. 더구나 교주는 걸핏하면 지방으로 기도를 간다고 해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체포할 당시, 이들은 이곳에 출입을 하지 않아 교주 측으로부터 의심을 사고 있었다.

예배장소는 한옥 여러 채를 구입해 안으로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고 내부는 미로같이 얽혀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해외유학생 출신도 포함된 여성들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믿기도 어려웠다. 현장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지 그 내부를 꼭 한 번 확인해야만 했다.

취재진은 사전에 이 종교에 입문을 원하는 신도를 가장하여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예상대로 끊임없는 의심에 찬 질문공세로 건물진입이 쉽지 않았다. 3번째 시도 끝에 집안에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으나 교주를 만날 수는 없었다.

고발프로에서 취재의 양과 범위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광범위하고 철저하다. 사건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당시 「PD 수첩」은 평균 5주에 한 번 방송한다면 2주일 동안 아이템을 찾거나 이에 관해 스테디하고 촬영은 2주일을 밤낮으로 집중 취재하게 된다. 마지막 1주일은 보충 촬영 겸 편집을 하는데 촬영 테이프는 방송되는 양의 100배 정도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한 사람의 전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기에 소홀하게 다루서는 안 된다. 막상 취재하다보면 문제가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말로 큰 문제다 싶으면 완벽하게 되도록 이중삼중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된다. 드디어 사건의 실체를 대부분 파악하게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문제의 당사자를 찾아가

취재한 것에 대해 확인을 거치는 것이다. 그래도 때  
 번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번 경우, 방송을 포기해야만 할 것인가? 교주는  
 거짓으로 점철된 과거에다 복잡한 사생활, 무슨 무슨  
 인 총재로 전국에 따르는 제자가 수십만이라고도 했  
 다. 실제로 취재 중에 건장한 남자들이 주위를 배회  
 하며 무언의 시위를 하였고 그만둘 것을 위협하며  
 증거로 삼는다며 우리를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교주  
 의 딸까지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는 거짓으로 점철  
 된 인생을 그만두라'고 호소했음에도 잠적과 교묘한  
 피하기 등으로 미뤄볼 때 교주는 상당한 지능범으로  
 파악되었다. 그는 절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버  
 릴 것이다.

당사자의 반론을 들어보고 의문되는 사실에 대해  
 직접 확인을 해야 함은 고발프로그램의 당연한 의무  
 일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해서도 필요하  
 다. 또한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법이다. 그러다보니 주인공을 찾는데 소모하는  
 시간이 의문점을 밝히려는 취재시간과 맞먹는 편이  
 다. 만나기 위해 전화를 수십 차례 걸고 기관인 경우  
 공문을 발송한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집에까지 찾  
 아가 아예 집 앞에서 밤을 새우기도 한다.

그러나 교주를 만나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면 교주  
 는 무얼 하고 있는 것일까? 일단 언론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처에 콕 처박힌 채 측근들과 대책  
 을 논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소도 수시로  
 옮겨 다녀 정확한 거처를 아는 사람도 극소수다. 방  
 송 전이라면 방송이 원천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법  
 원에 방영금지 가처분을 제출하고, 여의치 않아 방송  
 이 나간 후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와 정정  
 보도를 청구한다. 또한 검찰에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을,

손을,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줄줄이 걸어 올 것  
 이다. 실제로 교주는 언론 전문변호사를 통해 이 모  
 든 소송을 실현시켰다.

묘수가 없었다. 그때 한 신도가 얼마 전 교주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그릇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  
 겠다. 이 신도는 아직까지 교주의 신뢰가 남아 있었  
 다. 그를 설득하여 몰래카메라를 맡기기로 하고 날짜  
 를 기다렸다. 교주가 머무는 곳은 신도들이 종교의식  
 을 갖곤 하는 종교시설인데도 사람을 구별하여 입장  
 을 시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교주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중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교  
 주가 집안에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주변에는 교주  
 의 승용차도 보였다. 집안에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혹시나 교주가 바깥으로 달아날 경우를 대비, 취재진  
 을 입구에다 배치해 놓았다. 이제 정말로 교주를 만  
 날 시간인 것이다. 그릇을 찾아 나선 신도를 뒤따라  
 교주의 처소로 향했다. 그 신도가 초인종을 눌렀다.  
 방심했던지 안에서 문을 연 순간 취재진이 밀고 들  
 어갔다.

교주는 없었다. 온 집안을 살펴보았으나 끝내 교주  
 를 만날 수 없었고 그 과정은 고스란히 방송 때 전  
 파를 뒀다.

방송 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교주를 상대로 제  
 기한 소송에서 이들은 모두 승소하였다. 그러나 그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는 힘들 것이다. 취재를 시작  
 한 이후 지금까지 나는 교주의 얼굴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다. 취재 중 해외로 잠적했기 때문이다. 예  
 순이 된 교주의 해외도피생활을 그 나름의 죄값을  
 치른다고 위로해야만 할까? 교주 측의 법적인 소송  
 은 끈질기고도 집요했다. 오히려 친고죄의 일종인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고 나는 소송의 붓물에 오  
 랫동안 신음해야만 했다.

위에 열거한 사례들은 직접 겪고 체험한 것들이다.

**무조건 취재윤리를 따르기 보다  
취재윤리의 위반 정도와 밝혀진 진실과의 비중을  
계량해보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어**

그럼 고발프로그램 제작진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문제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수십 번 진정이나 고소를 해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기에 그들은 마지막으로 언론에 구조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종교의 경우에는 수사당국과 언론사들이 의도적으로 맡기를 꺼린다. 몇 년 전 자신들의 비리를 방송한다고 신도 수백 명이 방송사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방송시설을 파괴시키면서 강제로 방송을 중단시킨 모 교회의 무법성과 광폭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현장에서 취재윤리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언론은 사실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실 뒤에 숨은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 그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정보력과 자본을 가진 그들은 취재진이 언론윤리만 강조하는 사이 진실과 함께 저 멀리 달아나 버릴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익비교형량의 법칙처럼 취재윤리의 위반 정도와 밝혀진 진실과의 비중을 계량해보는 것은 어떨까? 무조건 취재윤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들에서 언론이 순수하게 자신의 의도를 밝혔다면 취재가 가능했을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PD들에게도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3D업종이 된지 오래다. 상대적으로 시사고발 피디들은 순수하고 정의감에 불탄다. 이들은 세상의 비리를 파헤치고 고발하여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개선책을 가져오길 꿈꾼다. 연예인들의 시시껄렁한 신변잡기가 난무하는 프

로그램이 판을 치는 세상에 비리를 찾아 며칠씩 잠도 못자며 문전박대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즐기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고발프로를 하다보면 민, 형사상 소송을 당해 수시로 법원과 검찰에 출입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가슴을 짓누른다. 갈수록 뻣뻣해지는 여건과 자신이 막상 고발프로의 대상이 되었을 때 보여주는 취재원의 이중성으로 인해 취재진은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

지난 1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의 윤리”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재영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는 “개인적으로 몰래카메라를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취재여건이 OECD국가 중에서도 열악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기자협회나 방송프로듀서연합회에도 나름대로의 취재윤리 규정이 있다. 문화방송의 방송강령, 윤리강령에도 몰래카메라에 관한 준칙이 있다. 이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기법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호를 침해하는 등 실정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문화방송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탐사형 고발 프로그램이나 단체, 기업, 정부 등의 비리를 폭로하고 감시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중대한 공익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그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예외 규정을 두었다.

첫째, 취재하는 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또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대체 수단이 없을 경우.

둘째, 몰래카메라 기법의 취재로 침해되는 프라이버시 정도보다 몰래카메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뉴스의 가치가 현저히 클 경우.

셋째,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단순히 흥미유발을 위한 기법으로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고, 취재원의 동의를 구해서 사용할 경우이다.

시사 고발프를 맡고 있는 어느 누구도 몰래카메라의 사용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취재의 결과물이 단지 몰래카메라 기법으로 된 것이

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 고발 프로그램의 취재진도 다시 한 번 이 규정을 숙지하고 취재윤리에 엄격해진 국민의 의식을 인식하여 앞으로 취재 시 관례적으로 행하던 구습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밝아지고 나아진 것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몰래카메라 취재기법에 힘입은 바가 아니었을까? 만일 언론이 언론의 당연한 임무인 권력에 대한 견제와 환경감시 기능을 포기했을 때 정말로 이를 반기는 것은 누구일까를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